

[성명]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를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2개의 메일

2008년 4월 16일 오전 10:25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를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마석 성생공단에서 일어난 인간사냥 단속반의 폭력적 단속으로 골절, 의식불명 등 부상자 속출...

최근 들어 언론들에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늘고 있다. 우려했던 이렇듯 보도가 MBC, 연합뉴스와 같은 메이저 주류 언론들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보도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한 '불법체류자' 집단이라며 공격을 퍼붓는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AI도 이주노동자들 탓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내고 있다.

(=> 이주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4월 13일 자 이주노조 논평을 참조하십시오)

이 보도들은 실제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법무부는 '2008년 법무부 업무계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기획조사 활성화 및 입국심사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를 내세우며 4월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언론 보도 행태는 가뜰이나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표방한 법무부에게 매우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4월 들어 합동 단속이 시작된 듯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단속이 극심하다. 특히 양주 살인 사건을 빌미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단속이 매우 강해졌다. 이 지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져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숨죽이는 분위기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마석 성생공단에도 단속이 잦아졌다. 지난 2005년 10월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적 단속 장면을 보고 분개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항의에 부딪혀 단속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을 모두 석방시켰고 지난 해까지도 이 지역에 단속반은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단속반이 최근에는 마석 성생공단에 들어와 공장과 집을 수색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오늘 아침인,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경, 또 다시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마석 성생공단에 들어 닦쳤다.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됐고, 3명이 단속반을 피하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쫓아오는 단속반을 피해 건물 옥상까지 도망쳐 이웃 옥상으로 건너뛰려다 떨어져 허리,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또 다른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도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슬레이트 지붕을 깨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은 바닥에 떨어져 실신했지만 병원으로 후송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지금 의식 불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직후 순식간에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마석 살롬의 집으로 모여들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금 이런 단속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단속은 모두 불법적 단속이다. 공장주와 주거지에 영장도 없이 무단 진입하는 건 기본이다. 이런 단속이 불법적이고 위법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엄정한 법 적용을 외쳐대는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되풀이하며 폭력적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인간사냥 단속을 일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는 이 법무부와 단속반이 진정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다.

한국 땅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들일 뿐이다. 그것도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온갖 고된 일을 떠맡으면서도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단속의 공포 때문에 집 근처 마트도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하고, 아파도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이것이 지금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이라 떠들어 대는 언론과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진정한 현실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데 정신없다. 후안무치한 기업주들의 요구는 넘쳐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정부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반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 동안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억압적이고 차별적 정책으로 충분하고도 넘치는 고통을 당해왔다. 이것으로 부족해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것을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비열한 짓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와 추악한 언론 보도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제 단체들과 강력한 연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8. 4. 1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규탄 성명>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를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마석 성생공단에서 일어난 인간사냥 단속반의 폭력적 단속으로 골절, 의식불명 등 부상자 속출....

최근 들어 언론들에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이런 보도가 MBC, 연합뉴스와 같은 메이저 주류 언론들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보도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험한 '불법체류자' 집단이라며 공격을 퍼붓는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시도 이주노동자들 탓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대고 있다.

(☞ 이주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성명서 하단에 첨부한 글을 참조하십시오)

이 보도들은 실제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법무부는 '2008년 법무부 업무계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기획조사 활성화 및 입국심사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를 내세우며 4월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언론 보도 행태는 가뜰이나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표방한 법무부에게 매우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4월 들어 합동 단속이 시작된 듯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단속이 극심하다. 특히 양주 살인 사건을 빌미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단속이 매우 강해졌다. 이 지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져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숨죽이는 분위기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마석 성생공단에도 단속이 잦아졌다. 지난 2005년 10월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적 단속 장면을 보고 분개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항의에 부딪혀 단속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을 모두 석방시켰고 지난 해까지도 이 지역에 단속반은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단속반이 최근에는 마석 성생공단에 들어와 공장과 집을 수색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오늘 아침인,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경, 또 다시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마석 성생공단에 들어 닦쳤다.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됐고, 3명이 단속반을 피하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쫓아오는 단속반을 피해 건물 옥상까지 도망쳐 이웃 옥상으로 건너뛰려다 떨어져 허리,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또 다른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도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슬레이트 지붕을 깨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은 바닥에 떨어져 실신했지만 병원으로 후송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지금 의식 불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직후 순식간에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마석 살롬의 집으로 모여들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금 이런 단속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단속은 모두 불법적 단속이다. 공장과 주거지에 영장도 없이 무단 진입하는 건 기본이다. 이런 단속이 불법적이고 위법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엄정한 법 적용을 외쳐대는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되풀이하며 폭력적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인간사냥 단속을 일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 법무부와 단속반이 진정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다.

한국 땅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들일 뿐이다. 그것도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온갖 굶은 일을 떠맡으면서도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단속의 공포 때문에 집 근처 마트도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하고, 아파도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 이것이 지금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이라 떠들어 대는 언론과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진정한 현실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데 정신없다. 후안무치한 기업주들의 요구는 넉죽 받아들이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정부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반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 동안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억압적이고 차별적 정책으로 충분하고도 넘치는 고통을 당해왔다. 이것으로 부족해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것을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비열한 짓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와 추악한 언론 보도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제 단체들과 강력한 연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8. 4. 1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